

몇 가난한 백인 가족에게 보내주기도 했어. 이 섬에서 태어난 그들은 유럽식 빵을 먹어본 적도 없고, 흑인 노예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, 숲 한복판에서 마니옥이나 캐 먹으며 살아갈 처지로 전락한 이들이었으니, 그런 가난을 이겨내기엔 노예 생활에 수반되는 우둔함도, 교육에서 생가나는 용기도 가지고 있지 못했지. 그 케이크는 비르지니가 집안 살림에 여유를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지만, 그 아이는 거기다가 정성스레 축복을 담아 더없이 귀한 선물로 만들어주었어. 당장에 풀이 나서서 먼저 이 가족들에게 케이크를 가져다주기로 했고, 그 사람들은 케이크를 받고 난 다음 날, 라 투르 부인네 집이나 마르그리트네 집에 와서 하루를 보내기로 약속했다네. 그러면 어떤 엄마는 딸 두셋을 데리고 오는 것이 보였는데, 비참한 물골에다가 너무 주눅이 들어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지. 비르지니는 곧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었네. 다과와 음료를 대접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하나하나의 사연을 통해 거기 담긴 신의를 부각시켜, 그 아이의 말마따나 더 큰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지. 가령 이 음료는 마르그리트가 준비했다느니, 저 음료는 자기 어머니가 준비한 것이라느니, 자기 오빠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 그 과일을 직접 따 왔다는니 하는 것이었네. 비르지니는 풀에게 부탁해서 그들과 춤을 춰달라고도 했지. 그 아이는 그렇게 그들이 행복해하고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곁을